# 중간평가 경진대회 보고서

과목명 :딥러닝/클라우드학번 :32152339주전공 :응용통계학과

이름: 송준영

## 목차

## I . 개요

1) 분석 과정 요약

## Ⅱ. 탐색적 자료 분석

- 1) 데이터 탐색
- 2) 시각화
- 3) Feature engineering

## Ⅲ. 모델링

- 1) Random Forest
- 2) XGBoost
- 3) LightGBM
- 4) Multi-Layer Perceptron
- 5) Support Vector Machine + Bagging
- 6) K-Nearest Neighbor + Bagging
- 7) Extra Trees
- 8) CatBoost
- 9) HistGBM
- 10) Ensemble
- -----Voting
- -----Stacking

## Ⅳ. 결언

- 1) 결과
- 2) 느낀 점
- 3) 한계점
- 4) 참고

## I . 개요

#### 1) 분석 과정 요약

- 탐색적 자료 분석
  - 이상치 제거하지 않음.
  - var\_11+var\_17, var\_5/var\_9, var\_11\*var\_17를 추가.
  - **v**ar\_26, var\_30 변수를 삭제.

#### ● 모델링

- base learner : 5-fold stratified cross validation으로 검증

- stacking : 10-fold stratified cross validation으로 검증

Agorithm	Feature set	Accuracy	Parameter	Stacking	Stacking
			tuning		accuracy
Random	raw ver	91.0748%	randomized	Х	93.1776%
Forest	modified ver	91.1682%	grid	X	
XGBoost	raw ver	91.7056%	Bayesian	0	
	modified ver	92.0794%	Bayesian	Х	
LightGBM	raw ver	91.5888%	randomized	X	
	modified ver	92.4065%	grid	0	
MLP	modified ver	89.1589%	grid	X	
SVM	modified ver	89.1822%	grid	X	
KNN	raw ver	91.0748%	randomized	0	
	modified ver	90.5841%	grid	X	
ExtraTrees	modified ver	91.0514%	grid	X	
HistGBM	modified ver	91.4953%	grid	X	
CatBoost	raw ver	91.8224%	randomized	X	
	modified ver	91.8458%	grid	X	

#### ● 최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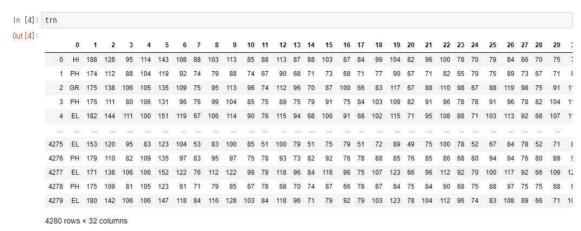
- cv accuracy : 93.1776%

- test accuracy : 0.936681222707424 - 경진대회 최종 test accuracy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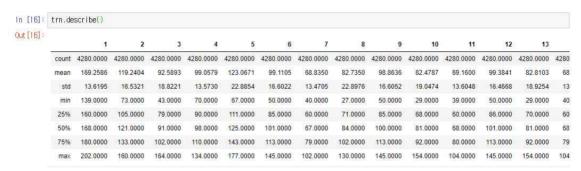
## Ⅱ. 탐색적 자료 분석

#### ▶ Ⅱ-1) 데이터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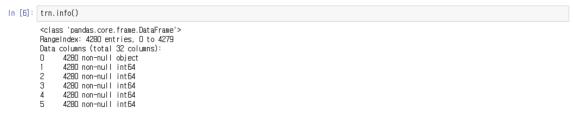
데이터 분석에 앞서 일단 가장 먼저 행해야하는 것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열이 종속변수이고, 나머지 31개의 독립변수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 변수명이 없기 때문에 feature engineering에 있어 domain에서의 도움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든 독립변수가 정수형이다.



위 표에서는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분위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min과 max가 일사분위수와 삼사분위수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이상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치에 대한 것은 다음 장 Ⅱ-2)시각화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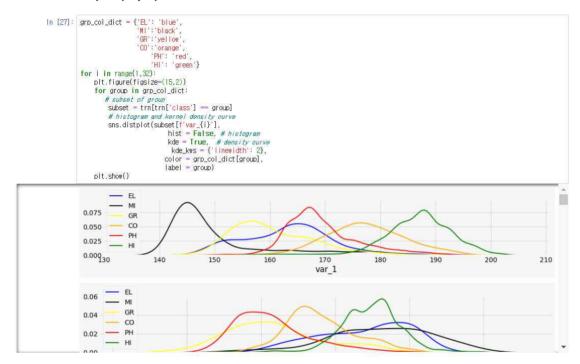
위와 같이 데이터형은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정수형이므로 별다른 형변환 작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변수명을 변경해 준다.

```
In [7]: trn[0].value_counts() #0개 level의 범주형 tar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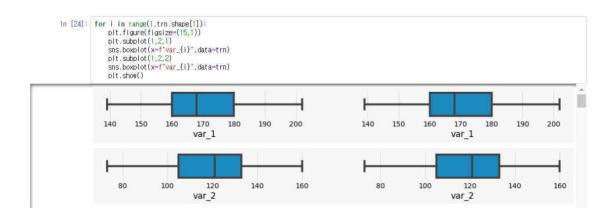
Out[7]: EL 1017
PH 981
HI 997
MI 492
GR 459
CO 424
Name: 0, dtype: int64
```

종속변수는 총 6개의 level의 범주형 변수이며, 각 수준의 빈도는 위와 같다. 수준별 빈도가 불균형하므로 k-fold보다는 stratified k-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검증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 Ⅱ-2) 시각화



모든 변수의 종속변수 수준별 distplot을 살펴본 결과, var\_1, var\_7, var\_11, var\_14, var\_15, var\_17, var\_18, var\_24, var\_25, var\_28, var\_29가 구분 잘되는 변수로 보인다. 다음 장인 II-3)feature engineering에서 상기 줄에 언급하였던 변수들끼리 연산하여 feature를 추가해보기로 한다.



모든 변수의 boxplot을 살펴본 결과, var\_10, var\_13, var\_16, var\_23, var\_27, var\_31의 변수가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estset에도 trainset과 유사한 이상치가 존재하므로 제거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별다른 변수 변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변수별 상관관계를 확인해보니 상관계수가 높은 쌍의 변수들이 몇 확인된다.

수치로 확인하였을 때 var\_14의 경우 상관계수가 +- 0.9를 넘는 것이 9쌍으로 확인되었다. 제거하기엔 아직 modeling에서의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이전이라 보류한다.

#### ► II -3) Feature engineering

```
In [39]: xgb_p_vai = np.zeros((ftr.shape[0], n_class))
xgb_p_tst = np.zeros((tst_ar.shape[0], n_class))
for i, (i_trn, i_val) in enumerate(cv.split(ftr, target), |):
    print(f'training model for CV #{i};')
    xgb_clf = xgb.XGBClassifier()
    xgb_clf, fit(ftr[i_trn], target[i_trn],
        eval_set=[(ftr[i_vai], target[i_vai])],verbose=Faise)
    xgb_p_vai[i_vai, :] = xgb_clf.predict_proba(ftr[i_vai])
    xgb_p_tst += xgb_clf.predict_proba(ftst_ar) / n_fold
    print(f'{i}fold accuarcy:',accuracy_score(target[i_vai],np.argmax(xgb_p_vai[i_vai],axis=1)))
    print()
    print(ff{accuracy_score(target, np.argmax(xgb_p_vai, axis=1)) * 100:.4f}%')
    print(ftr.shape)
    print(xgb_clf)

89.8832%
(4280, 31)
XGBClassifier(objective='multi:softprob')
```

feature engineering 하기에 앞서 5-fold stratified cross-vaildation으로 raw data를 xgboost로 학습해보니 89.8832% 의 accuracy를 얻었다. feature set 성능비교의 base model로 xgboost를 선택한 이유는 random forest, logistic regression, knn, svm을 모두 실험해본 결과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이 성능의 유의미한 향상을 일으키는 feature set을 선택하거나 feature 중요도 분석(eli5 모듈의 permutation importance1))을 통해 중요도가 높은 feature를 raw dataset에 추가하기로 한다.

먼저, 원 독립변수 31개에 대한 모든 조합의 사칙연산 feature set들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덧셈 연산 feature set은 var1+var2, var1+var3 … var30+var31 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모든 조합의 (+) 연산 feature set 생성

```
In [48]: trn_add = trn.drop('class', axis=1)
    tst_add = tst.copy()
    for df in [trn_add,tst_add]:
        for cl_c2 in itertools.combinations(df.columns,2):
            col=f'add_{cl}_{c2}'
            df[col]=df[cl]+df[c2]
    ftr=trn_add_values
    tst_ar=tst_add_values
```

위처럼 모든 조합에 따라 덧셈 연산을 실시한 feature을 raw dataset에 추가한다.

```
90.3271%
(4280, 496)
%GBClassifier(objective='multi:softprob')
```

위 baseline model로 496개의 덧셈 연산 feature set을 학습해보니 90.3271%라는 accuaracy를 얻을 수 있었다. feature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ccuracy의 큰 향상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eli5 모듈의 permutation importance를 진행한다.

```
In [57]: perm = PermutationImportance(xsb_clf, scoring = "accuracy").fit(ftr, target) eli5.explain_weights_df(perm, top = ftr.shape[I], feature_names = trn_add.columns.tolist()).head()

Out [57]:

| reature | weight | std | |
| 0 | add_var_11_var_17 | 0.0280 | 0.0021 |
| 1 | add_var_7_var_24 | 0.0067 | 0.0009 |
| 2 | add_var_3_var_27 | 0.0052 | 0.0014 |
| 3 | add_var_4_var_28 | 0.0047 | 0.0003 |
| 4 | add_var_7_var_23 | 0.0046 | 0.0008
```

그 결과 var\_11 + var\_17 이라는 변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출력하였다. 해당 변수는 modeling 시 추가를 시도한다.

다음은, 뺄셈 연산을 실시한 feature을 raw dataset에 추가한다.

#### - 모든 조합의 (-) 연산 feature set 생성

```
In [60]: trn_dif = trn.drop('class', axis=1)
    tst_dif = tst.copy()
    for df in [trn_dif,tst_dif]:
        for cl,c2 in itertools.combinations(df.columns,2):
            col=f'dif_{cl}_{c2}'
            df[col]=df[cl]-df[c2]
    ftr=trn_dif.values
    tst_ar=tst_dif.values
```

<sup>1)</sup> https://eli5.readthedocs.io/en/latest/blackbox/permutation\_importance.html

역시 큰 성능 향상은 없었고, permutation importance 결과 뺄셈 연산에 대한 feature도 상위에 존재 하지 않았다.

다음은, 나눗셈 연산을 실시한 feature을 raw dataset에 추가한다.

#### - 모든 연산의 (/) 연산 feature set 생성

큰 성능 향상은 없었으나, var\_5/var\_9 변수가 중요도가 높은 변수임을 알아냈다.

다음은, 곱셈 연산을 실시한 feature을 raw dataset에 추가한다.

#### - 모든 연산의 (\*) 연산 feature set 생성

그 결과 var\_11 \* var\_17 이라는 변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출력하였다. 해당 변수는 modeling 시 추가를 시도한다.

다음은 Ⅱ-2)시각화 part에서 찾은 변수들을 연산하여 raw data에 추가해보기로 한다.

eda를 통해 얻은 연산 피쳐들이 permutation importance 결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산을 통하여 feature을 추가하여 중요한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var\_11+var\_17, var\_5/var\_9, var\_11\*var\_17라는 변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추가하여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다.

추가한 피쳐들이 위와 같이 높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성한 feature set을 사용하기에 앞서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도 삭제해준다. 고차원에서 오는 과적합을 일부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0.0008 ± 0.0022 var_2
0.0001 ± 0.0002 var_25
0.0000 ± 0.0013 var_22
-0.0005 ± 0.0021 var_30
-0.0005 ± 0.0012 var_26
```

위처럼 var\_26, var\_30 변수를 삭제한 후 본격적인 modeling을 시작한다.

## Ⅲ. 모델링

모델링을 기술하기에 앞서 개략적인 모델링의 과정을 설명한다. 해당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 튜닝법을 익히기 위하여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알고리즘과 튜닝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모델을 위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후 마지막에는 그 개별 모델들을 ensemble하여 성능을 끌어올릴 것이다. ensemble의 base leaner로는 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MLPclassifier, SVM, KNN, extraTREE, catboost, histGBM 이렇게 총 9개를 시도하였다. <sup>2)</sup>scikit-learn 홈페이지에 보면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보기 좋게 정리해놓아 이를 참고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을 시도 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모델은 II-1) 데이터 탐색에서 기술하였듯이 stratified 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한다.

파라미터 튜닝으로는 grid search, randomized search, Bayesian(<u>hyperopt</u>)<sup>3)</sup>를 사용할 것이다.

우선 모델링 환경을 구축한다. seed, cv 등을 정의하고, dataset을 확인한다.

#### ▶ 1) Random Forest

grid search를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 random forest는 정수형이나 캐릭터형 파라미터 옵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grid search를 사용하였다.

```
= GridSearchCV(RandomForestClassifier(n_jobs=-1,random_state=seed),
                                  parameters.
                                  verbose=True,
                                  CV=CV,
                                  n_jobs=-1)
            clf.fit(ftr, target)
            Fitting 5 folds for each of 16 candidates, totalling 80 fits
            [Parallel(n_jobs=-1)]: Using backend LokyBackend with 8 concurrent workers.
[Parallel(n_jobs=-1)]: Done 34 tasks | elapsed: 1.9min
[Parallel(n_jobs=-1)]: Done 80 out of 80 | elapsed: 4.7min finished
Out[136]: GridSearchCV(cv=StratifiedKFold(n_splits=5, random_state=32152339, shuffle=True), estimator=RandomForestClassifier(n_jobs=-1, random_state=32152339),
                           n_i obs=-1.
                           'n_estimators': [1000, 2000]},
                           verbose=True)
In [139]: print(clf.best_params_)
            {'criterion': 'gini', 'max_depth': 17, 'n_estimators': 2000}
```

<sup>2)</sup> https://scikit-learn.org/stable/supervised\_learning.html#supervised-learning

<sup>3)</sup> http://hyperopt.github.io/hyperopt/

max\_depth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략적인 깊이를 탐색하고 자세한 깊이는 grid search를 통해 얻었다. 그 결과 gini 함수를 사용하며, 17의 깊이가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얻은 valid cross validation accuracy는 91. 1682%이다.

```
In []: algo_name = 'rf'
    feature_name = '91.1682'
    model_name = f'{algo_name}_{feature_name}'

p_val_file = val_dir / f'{model_name}.val.csv'
    p_tst_file = tst_dir / f'{model_name}.tst.csv'

np.savetxt(p_val_file, rf_p_val, fmt='%.6f', delimiter=',')
    np.savetxt(p_tst_file, rf_p_tst, fmt='%.6f', delimiter=',')
```

ensemble에 사용하기 위하여 클래스별 확률 예측값을 local환경에 저장한다.

#### 2) XGBoost

XGBoost<sup>4)</sup>의 경우, parameter의 수가 많고 실수형 parameter가 꽤 존재하므로 **hyperopt** 모듈을 활용하여 hyper parameter optimization을 진행한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위와 같이 찾았으며, 해당 파라미터로 학습을 진행한다.

<sup>4)</sup> https://xgboost.readthedocs.io/en/latest/

(4280, 6) (1833, 6)

92.0794%의 accuracy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별 확률 예측값을 local환경에 저장한다.

#### 3) LightGBM

92.0794%

grid search를 활용하여 parameter tuning을 진행하였다.

```
in [220]: | lgb_p_val = np.zeros((ftr.shape[0], n_class))
| lgb_p_tst = np.zeros((tst_ar.shape[0], n_class))
| for i, (i_trn, i_val) in enumerate(x.solit(ftr, target), 1):
| print(f'training node for CV #f(')')
| lgb_clf = lgb_LGEMClassifier(
| abjective_type='xentropy',
| n_estimators='1000, |
| boosting_type = 'gbdt', |
| num_leaves=100, |
| learning_rate=0.1, |
| nin_data_in_leaf=30, |
| feature_fraction_bynode = 0.8, |
| feature_fraction_0.5, |
| early_stopoing_rounds=100, |
| metric='multi_error', |
| random_state=seed, |
| lgb_clf.fit(ftr[i_trn], target(i_trn], |
| eval_set=[(ftr(i_val), target(i_val))], |
| lgb_p_val[i_val, :] = lgb_clf.predict_proba(ftr[i_val]) |
| lgb_p_tst *= lgb_clf.predict_proba(tst_ar) / n_fold |
| print(f'(i)fold_accuarcy*',accuracy_score(target(i_val),np.argmax(lgb_p_val[i_val],axis=1))) |
| print(f(ftr.shape) |
| print(f'(faccuracy_score(target, np.argmax(lgb_p_val, axis=1)) * 100:.4f}%')
```

LGBMClassifier(early\_stopping\_rounds=100, feature\_fraction=0.5, feature\_fraction\_bynode=0.8, metric='multi\_error', min\_data\_in\_leaf=30, n\_estimators=1000, num\_leaves=100, random\_state=32152339) (4280, 32)

단일 모델 중 가장 높은 accracy인 92.4065를 기록하였다. <u>lightGBM의 경우 parameter</u>5)의 종류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grid search에 많은 시간비용이 투입되었다. 특이한 점은 lightGBM 알고리즘 특성상 해당 데이터처럼 행의 수가 많지 않으면 과적합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 위 lightGBM의 파라미터에서 max\_depth를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default인 -1로 각 나무를 생성한 것이다. 즉,

<sup>5)</sup> https://lightgbm.readthedocs.io/en/latest/Parameters.html

나무 깊이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 ▶ 4) Multi-Layer Perceptron

Multi-Layer Perceptron(이하 MLP)의 경우 위 알고리즘들과는 다르게 독립변수들 간의 종속성, 차원의 저주, 표준화에 특히 민감하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PCA와 scaling을 진행한후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
In [232]: trn_mlp=trn.copy()
    tst_mlp=tst.copy()
    ftr_mlp=trn_mlp.values
    tst_ar_mlp=tst_mlp.values

In [233]: scaler = StandardScaler()
    scaler.fit(ftr_mlp)
    ftr_mlp = scaler.transform(ftr_mlp)
    tst_ar_mlp = scaler.transform(tst_ar_mlp)

In [234]: pca = PCA(n_components=12)
    pca_12 = pca_fit_transform(ftr_mlp)
    pca_12_tst= pca_fit_transform(ftst_ar_mlp)

In [245]: sum(pca_explained_variance_ratio_)

Out [245]: 0.9857448654370654
```

위와 같이 scaling 및 PCA를 진행하였으며 12개의 요인으로 차원축소 하였다. 12개의 요인은 32개 변수의 분산 중 약 98.5%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12개의 요인으로 알고리즘학습을 진행한다. grid search를 이용하여 parameter tuning 하였다.

88.9486%의 accuracy를 보인다. 비록 위 tree계열 모델들보다 성능은 낮지만 ensemble에서 다양한 모델이 투입되면 성능 향상에 유리하므로 이를 기대해본다. 마찬가지로 local 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한다.

### ▶ 5) Support Vector Machine + Bagging

SVM 알고리즘 역시 scaling을 한 뒤 학습하였다. 성능이나 시간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parameter 많지 않아 tuning에 있어 시간 소모가 비교적 덜하였다. 딥러닝/클라우드 과목에서 학습한 SVM의 hyper parameter 중 kernel은 'rbf'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

해당 모델에서의 특징은 SVM의 variance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up>6)</sup>BaggingClassifier와 함께 사용하였다. variance를 줄임과 동시에 model의 성능을 약 0.8%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grid search**를 이용하여 parameter tuning 하였다.

accuracy는 89.1822%이다. 마찬가지로 local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한다.

#### ▶ 6) K-Nearest Neighbor + Bagging

KNN도 마찬가지로 scaling을 진행한다. 더불어 BaggingClassifier와 함께 사용하여 0.9%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grid search를 이용하여 parameter tuning 하였다.

90.5841%의 정확도를 얻었으며, local 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한다.

<sup>6)</sup> https://scikit-learn.org/stable/modules/generated/sklearn.ensemble.BaggingClassifier.html

#### ▶ 7) ExtraTrees

7) ExtraTreesclassifier는 Randomforest와 유사하나, 그 차이점은 사용하는 결정트리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Randomforest는 DecisionTree를 결정트리로 사용하지만 ExtraTrees는 ExtraTree를 결정트리로 사용한다. 성능 면에서도 randomforest와 유사하다. random forest와는 다르게 entropy를 불순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grid search로 parameter tuning 하였다.

```
In [254]: from sklearn.ensemble import ExtraTreesClassifier
                  ext n val = nn zerns((ftr shane[fi] n class))
                  ext_p_tst = np.zeros((tst_ar.shape[0], n_class))
for i, (i_trn, i_val) in enumerate(cv.split(ftr, target), 1):
                        print(f'training model for CV #{i}')
                       print(f'training model for CV #{i}')
ext_clf = ExtraTreesClassifier(n_estimators=1000,criter
ext_clf.fit(ftr[i_trn], target[i_trn])
ext_p_val[i_val, :] = ext_clf.predict_proba(ftr[i_val])
ext_p_tst += ext_clf.predict_proba(tst_ar) / 5
y_pred = ext_clf.predict(ftr[i_val])
y_pred = pd.Series(y_pred)
print(accuracy_score(pd.Series(target[i_val]), y_pred))
print(accuracy_score(pd.Series(target[i_val]), y_pred))
                                         ExtraTreesClassifier(n_estimators=1000,criterion='entropy', random_state=seed)
                  print(f'{accuracy_score(target, np.argmax(ext_p_val, axis=1)) * 100:.4f}%')
                  # print(confusion_matrix(target, np.argmax(ext_p_val, axis=1)))
                  training model for CV #1
                  0.9158878504672897
                  training model for CV #2
                  0.897196261682243
                  training model for CV #3 0.9065420560747663
                 training model for CV #4
0.9170560747663551
                  training model for CV #5
                  91.0514%
```

accuracy는 91.0514%이며 local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하였다.

#### ▶ 8) CatBoost

<u>catboost</u><sup>8)</sup>는 xgboost, lightGBM과 더불어 성능 좋은 boosting model로 평가받고 있으며, xgboost와 마찬가지로 level-wise로 트리를 만들어 나간다. (lightGBM은 Leaf-wise) 또한, xgboost, lightGBM과 더불어 아직 scikit-learn(ver.0.23.2 기준)에 함수가 없으므로 따로 module을 install해야 한다. **grid search**로 parameter tuning 하였다.

특이한 점은 해당 모델은 gpu를 사용하였는데, gpu/cpu 여부에 따라 나머지 parameter가

<sup>7)</sup>https://scikit-learn.org/stable/modules/generated/sklearn.ensemble.ExtraTreesClassifier.html 8) https://catboost.ai/docs/concepts/python-reference\_catboostclassifier.html

동일하여도 예측값이 다르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
91.8458% [[283 3 3 72 2 61]
[ 2 993 9 13 0 0]
[ 3 11 429 1 3 22]
[ 19 5 0 857 0 16]
[ 2 0 9 1 477 3]
[ 47 0 20 2 1 1 892]
```

accuracy 는 91.8458%로 lightGBM,xgboost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능을 자랑하였다. 마찬가지로 local 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한다.

#### 9) HistGBM

HistGBM<sup>9)</sup>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공개된 알고리즘으로써, Gradient Boosting Classification Tree가 histogram 기반이다. 일반 GBM보다 큰 dataset에서 훨씬 빠르게 작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 n\_samples >=10000) 본 데이터셋은 해당되지 않으나다양한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하여 시도하였다. max\_iter과 learning rate는 grid search를통하여 탐색하였다.

91.4953%의 정확도를 얻었으며, local환경에 확률 예측값을 저장한다.

#### ▶ 10) Ensemble

ensemble은 모델 성능 향상과 안정성 강화에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진대회에서 몹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크게 bagging, boosting, stacking, voting 등이 있다. bagging과 boosting은 위 9가지 model에서 이미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다. 이제부터는 위 9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voting과 stacking에 적용해볼 것이다.

#### -----Voting

voting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VotingClassifier의 parameter 중 'voting'에서 soft는 개별 분류기의 예측을 평균 내어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다. 이

<sup>9)</sup> https://scikit-learn.org/stable/modules/generated/sklearn.ensemble.HistGradientBoostingClassifier.html

를 간접 투표라고 한다. 이 방식은 확률이 높은 투표에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예측된 확률 값을 직접 투표하는 직접 투표 방식인 hard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렇기에 아래에서 나타나듯, 간접 투표 방식을 사용하였다.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지 않아 Stacking을 해보았다. 보통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voting 보다는 stacking의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 -----Stacking

stacking을 사용하기 위해선 위에서 local환경에 저장해 놓은 확률 예측값을 불러온다.

```
In [320]: tst_dir = Path('submission/tst')
val_dir = Path('submission/val')
model_names = [

# 'ob_91_8224',

# 'xpb_92_92074',

*xpb_82_92_0774',

*xpb_82_92_0774',

*xpb_82_92_0774',

*xpb_82_92_0774',

*xpb_91_7582',

*xpb_91_858',

*mlp_89_892',

*mlp_89_892',

*mlp_89_892',

*mlp_89_892',

*mlp_89_8982',

*db_91_8588',

*tob_91_8458',

*tob_91
```

주석된 확률 예측값은 raw data로 예측했던 것이다. 이렇게 스태킹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lightGBM으로 스태킹을 진행한다.

모든 모델로 10fold stratified cv로 검증하니 0.929439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델 중 stacking 성능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3개의 모델을 stacking 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xgboost, lightGBM, KNN을 선택하였고, 최종 CV accuracy는 93.1542%가 나왔다.

## Ⅳ. 결언

#### ▶ 1) 결과

- xgboost, lightGBM, KNN≗ stacking

- cv accuracy : 93.1776%

- test accuracy: 93.6681222707424%

- 최종 순위 : 1위

#### ▶ 2) 느낀 점

- XGBoost, LigthGBM, Catboost의 경우 powerful한 boosting 알고리즘답게 높은 성능을 자랑함을 느낌.
- ensemble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많은 모델이 투입되면 과적합에 빠져 오히려 성능이 심하게 저하될 수 있음.
- bagging을 사용하면 과적합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낌. 몇몇 weak learner와 bagging을 함께 이용했을 때 과적합 방지와 성능향상에 효과적이었음.
- 모델별로 학습시키기 전에 선제되어야 할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낌. 일례로 MLP의 경우 scaling 유무에 따라 5%까지 성능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
- 개별 base learner의 성능이 우수하면 반드시 stacking model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나 feature set이 얼마나 다양한가(독립적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낌.
- 경진대회라는 경쟁을 통해 많은 실력향상을 느꼈고, DACON, Kaggle 등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목표를 세울 예정.

#### ▶ 3) 한계점

- dataset이 비교적 크지 않아 seed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 python에 익숙하지 않아 대부분 hard coding으로 이루어져 실수가 잦고, 시간이 오래 걸렸음.
- EDA를 통해 얻은 변수가 성능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 많았음.
- 경험이 부족하여 EDA를 통하여 얻는 인사이트가 많지 않았음.
- 변수의 의미를 알 수 없어 feature engineering 시 domain을 통해 작업이 불가능하였음.

#### ▶ 4) 참고

- 딥러닝/클라우드 수업 교재 및 code
- 핸즈온 머신러닝 : 사이킷런, 케라스, 텐서플로 2를 활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완벽 실무
- 데이터 과학을 위한 통계
- 사이킷런 홈페이지 : https://scikit-learn.org/stable/index.html
- LightGBM 홈페이지: https://lightgbm.readthedocs.io/en/latest/Parameters.html
- XGBoost 홈페이지 : https://xgboost.readthedocs.io/en/latest/
- CatBoost 홈페이지 : https://catboost.ai/docs/concepts/python-reference\_catboostclassifier.html